

2024
고1
3월 학평

2024년 시행 고1 3월 학평 국어 문학 | 이춘풍전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춘풍 아내 곁에 앉아 하는 말이

< “마오 마오 그리 마오. 청루미색* 좋아 마오.(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음.) 자고로 [이런 사람(청루미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찌 망하지 않을까?]([]: 설의적 표현을 통해 청루미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음.)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소. 미나리골 박화진(청루미색에 빠져 망한 사람 ①)이라는 이는 청루미색 즐기다가 나중에는 굶어 죽고, 남산 밑에 이 패두(청루미색에 빠져 망한 사람 ②)는 소년 시절 부자였으나 주색에 빠져 다니다가 늙어서는 상거지 되고, 모시전골 김 부자(청루미색에 빠져 망한 사람 ③)는 술 잘 먹기 유명하여 누룩 장수가 도망을 다니기로 장안에 유명터니 수만금을 다 없애고 끝내 똥 장수가 되었다니, 이것으로 두고 볼지라도 청루잡기 잡된 마음 부디부디 좋아 마소.” >(< >: 다양한 인물들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춘풍 아내. 춘풍 아내는 춘풍에게 기녀를 좋아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을 전하고 있음.)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 내 말 들어보게. 그 말이 다 옳다 하되, 이 앞집 매갈쇠(주색잡기를 안했는데 망한 사람 ①)는 한잔 술도 못 먹어도 돈 한 푼 못 모으고, 비우고개 이도명(주색잡기를 안했는데 망한 사람 ②)은 오십이 다 되도록 주색을 몰랐으되 남의 집만 평생 살고, 탁골 사는 먹돌이(주색잡기를 안했는데 망한 사람 ③)는 투전 잡기 몰랐으되 수천 금 다 없애고 나중에는 굶어 죽었으니, 이런 일을 두고 볼지라도 주색잡기* 안 한다고 잘 사는 바 없느니라. 내 말 자네 들어보게. 술 잘 먹던 이태백(주색잡기를 했는데 잘 된 사람 ①)은 호사스런 술잔으로 매일 장취 놀았으되 한림학사 다 지내고 투전에 으뜸인 원두표(주색잡기를 했는데 잘 된 사람 ②)는 잡기를 방탕히 하여 소년부터 유명했으나 나중에 잘되어서 정승 벼슬 하였으니, 이로 두고 볼진대 주색잡기 좋아하기는 장부의 할 바라. 나도 이리 노닐다가 나중에 일품 정승 되어 후세에 전하리라.(춘풍 아내의 경계를 듣지 않고 자신은 주색잡기를 할 것임을 말하고 있음.)”]([]: 춘풍 아내가 제시한 사례와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색잡기를 합리화하고 있음. **춘풍 아내와 춘풍 모두 사례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서술상의 특징, 또는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아니 듣고 수틀리면 때리기와 전곡 남용 일삼으니(춘풍의 부정적인 면모. 춘풍은 경제관념이 없고 현실적 쾌락만 추구하는 인물임.) 이런 변이 또 있을까? 이리저리 놓고 나니 집안 형용 볼 것 없다.(서술자의 개입. 고전 소설의 대표적인 서술상 특징에 해당함.)

“다 내 몸에 정해진 일이요, 내 이제야 허물을 뉘우치고 책망하는 마음이 절로 난다.”(자신의 지난날을 반성하는 춘풍)

아내에게 지성으로 비는 말이

“노여워 말고 슬퍼 마소. 내 마음에 자책하여 가끔 말하기를, ‘오늘의 옳음과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노라’고 한다오. 지난 일은 고사하고 가난하여 못 살겠네.(전곡 남용을 일삼다가 가난해짐.) 어이 하여 살잔 말인고? 오늘 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자네에게 맡기나니 마음대로 치산하여 의식이 염려 없게 하여 주오.”

춘풍 아내 이른 말이,

[“부모 유산 수만금을 청루(기생집) 중에 다 들이밀고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더욱 근심이 많을 것이니, 약간 돈냥이나 있다 한들 그 무엇이 남겠소?”]([]: 춘풍은 주색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함. 춘풍 아내는 부모의 유산을 다 잃은 상황에서 앞으로 근심이 더욱 많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 하는 말이 나를 별로 못 믿겠거든 이후로는 주색잡기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각서를 써서 줘세.”(춘풍

은 춘풍 아내에게 주색잡기를 안하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함.)

[중략 부분 줄거리] **춘풍 아내가 열심히 품을 팔아 집안을 일으키자**(무능한 가장인 춘풍과 유능한 아내인 춘풍 아내가 대비되고 있음. **춘풍과 춘풍 아내의 인물 유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춘풍은 다시 교만해지고, 아내의 만류에도 호조에서 이천 냥을 빌려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게 된다. **춘풍이 평양에서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장사는 하지 않고 재물을 모두 탕진한 채**(제 버릇 남 못 주고 또 주색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춘풍) **추월**(춘풍의 돈을 빼앗고 춘풍을 머슴으로 부리는 인물)의 하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춘풍의 아내가 통곡한다.

이리 한참 울다가 도로 풀고 생각하되,

‘[**우리 가장**(춘풍) 경성으로 데려다가 호조 돈 이천 냥을 한 푼 없이 다 갚은 후에 의식 염려 아니하고 부부 둘이 화락하여 백 년 동락하여 보자.]([] : 춘풍 아내의 바람. 춘풍의 빚을 청산하고 춘풍과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음.) 평생의 한이로다.’

[마침 그때 김 승지 닻이 있으되 승지는 이미 죽고, 만자제가 문장을 잘해 소년 급제하여 한림 옥당 다 지내고 도승지를 지낸 고로, 작년에 평양 감사 두 번째 물망에 있다가 올해 평양 감사 하려고 도모하던 말을 사환편에 들었겠다.]([] : 요약적 제시) 승지 닻이 가난하여 아침저녁으로 **국록**(나라에서 주는 녹봉)을 타서 많은 식구들이 사는 중에 그 닻에 노부인 있다는 말을 듣고, **바느질품을 얻으려고**(바느질로 돈을 벌려는 춘풍 아내) 그 닻에 들어가니, 후원 별당 깊은 곳에 도승지의 모부인이 누웠는데 형편이 가난키로 식사도 부족하고 의복도 초췌하다. 춘풍 아내 생각하되,

‘이 닻에 붙어서 우리 가장 살려내고 추월에게 복수도 할까.’

하고 **바느질, 길쌈 힘써 일해 얻은 돈냥 다 들여서 승지 닻 노부인에게 아침저녁으로 진지를 올리고, 노부인에게 맞은 차담상을 특별히 간간히 차려드리거늘**(춘풍을 살려내고 추월에게 복수하기 위해 춘풍 아내가 생각한 방법. 김 승지 닻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부인에게 접근함. 춘풍 아내의 주도면밀함이 드러남.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 제시하고 있음. **인물의 심리 및 성격 제시 방법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부인이 감지덕지 치사하며 하는 말이,

“이 은혜를 어찌 할꼬?”

주야로 유념하니, 하루는 춘풍의 처더러 이르는 말이,

“내 들으니 네가 집안이 기울어서 바느질품으로 산다 하던데, 날마다 차담상을 차려 때때로 들여오니 먹기는 좋으나 불안하도다.”(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데도 차담상을 차려 주는 춘풍 아내에게 부담감을 느낌.)

춘풍 아내 여쭙되,

“소녀가 혼자 먹기 어렵기로 마누라님 전에 드렸는데 칭찬을 받사오니 오히려 감사하여이다.”

대부인이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처를 못내 기특히 생각하더라.

하루는 도승지가 대부인 전에 문안하고 여쭙되,

“요사이는 어머님 기후가 좋으신지 화기가 얼굴에 가득하옵니다.”

대부인 하는 말씀이,

“기특한 일 보았도다. 앞집 춘풍의 지어미가 좋은 차담상을 매일 차려오니 내 기운이 절로 나고 정성에 감격하는구나.”(춘풍 아내 덕분에 기운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음.)

승지가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처를 귀하게 보아 매일 사랑하시더니, 천만 의외로 김 승지가 평양 감사가 되었구나. 춘풍 아내, 부인 전에 문안하고 여쭙되,

“승지 대감, 평양 감사 하였습니다오니 이런 경사 어디 있사오리까?”

부인이 이르는 말이,

“나도 평양으로 내려 갈 제, 너도 함께 따라가서 춘풍이나 찾아보아라.”(춘풍 아내가 홀로 지낸다는 것을 알고 평양에 함께 따라가서 춘풍을 찾을 것을 권유하고 있음.)

하니 춘풍 아내 여쭙되,

“소녀는 고사하옵고 오라비가 있사오니 비장*으로 데려가 주시길 바라나이다.”(평양과 함께 동행하자는 대부분의 권유에, 자신이 아닌 자신의 오라비를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춘풍 아내. 여기서 ‘오라비’는 남장한 춘풍의 아내임.)

대부인이 이른 말이,

“네 청이야 아니 듣겠느냐? 그리하라.”(춘풍 아내에 대한 신의를 바탕으로 춘풍 아내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있음.)

허락하고 감사에게 그 말을 하니 감사도 허락하고,

“회계 비장 하라.”

하니 좋을시고, 좋을시고. 춘풍의 아내 없던 오라비를 보낼쏜가? **제가 손수 가려고 여자 의복 벗어놓고 남자 의복 치장한다.**(남장 모티프가 드러남. 비장으로 변장한 춘풍 아내는 평양으로 가서 추월과 춘풍에게 벌을 준 후, 춘풍이 돈을 되찾게 도와주고, 이후 춘풍은 개과천선함. 여성이 남장을 통해 신분적 억압이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조선 후기 고전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임. 이 작품에서는 남성 중심의 봉건적 사회에 대한 비판과 그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 여성의 능력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남성에게 비해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뛰어남을 보여줌. 이는 여성의 자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함. **남장의 의미를 묻는 문제와 남장 모티프가 드러나는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작자 미상, 「이춘풍전」

*청루미색: 기생집의 아름다운 기녀.

*주색잡기: 술과 여자와 노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비장: 감사를 따라다니며 일을 돕는 무관 벼슬.

핵심 정리

■갈래: 고전 소설, 판소리계 소설

■성격: 풍자적, 교훈적

■주제: 허위에 가득 찬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과 진취적인 여성상의 제시

■특징

■ 판소리 사설의 문체가 나타남.

■ 두 인물(이춘풍과 이춘풍의 아내)의 상반된 생활 태도와 갈등을 통해 주제를 제시함.

■ 남장 모티프를 통해 남성 중심의 봉건적 질서의 불합리성을 드러냄.

이해와 감상 1

「이춘풍전」은 무능한 가장과 유능한 아내의 대비를 통해 허위에 찬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진취적인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조선 후기 고전 소설이다. 이 작품은 주색잡기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가장 춘풍과 남편이 저지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춘풍 아내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수록 부분은 춘풍 아내가 주색잡기에 빠진 춘풍을 꾸짖는 장면과 평양에 가 춘풍을 구하고 추월에게 복수하기 위해 비장으로 변장할 기회를 얻어 내는 장면이다.

이해와 감상 2

이 작품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평범한 서민을 주인공으로 하여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무능하고 방탕한 남편 때문에 가정이 몰락하고, 슬기롭고 유능한 아내의 활약으로 다시 가정이 일어서는 이야기의 전개는 허위에 찬 남성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여성의 능력이나 기능을 부각시키려 한 의식을